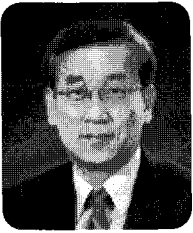


창간 24주년

특 집

양돈업의 미래 "친환경 유기 양돈"

유기축산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김 경 량 교수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1. 서 론

유기축산의 개념은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정란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가축에 각종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사료를 근간으로 그 외 항생물질, 성장호르몬, 동물성부산물사료, 동물약품 등 인위적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고, 집약 공장형 사육이 아니라 운동이나 휴식공간, 방목초지가 겸비된 환경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분뇨처리와 환경이 제어된 조건에서 사육, 가공, 유통, 평가, 표시된 가축의 사육체계와 그 축산물"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유기축산의 인증은 유기축산물의 생산과 더불어 최종생산재인 축산식품까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포함한다.

유기축산식품은 이렇게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저장·포장 및 유통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

하지 않고 국제기준(Codex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식품표시(Labelling)를 하여 완전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축산식품을 유기 축산식품 또는 자연식품이라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축산식품은 Codex Labelling(표시)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약 1,000만명의 유기식품소비자와 약 10,000여호에 달하는 유기농업인이 있고 유기식품의 연 매출규모는 1999년 기준 약 80억불에 이른다. 현재의 증가추세라면 2010년에는 총 식품매출액의 10%가 유기식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급성장 추세는 EU나 호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유기식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제역과 광우병 등의 파동을 겪은 후 일본농림성은 2001년 4월 이후 일본농림규격(JAS)에 유기농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전의 모



1999년 12월 29일



호했던 저농약, 감농약 등의 규정을 폐지하고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기축산의 시행은 아직도 검토중이다.

최근까지 4,550여 농가가 유기농가로서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외국의 농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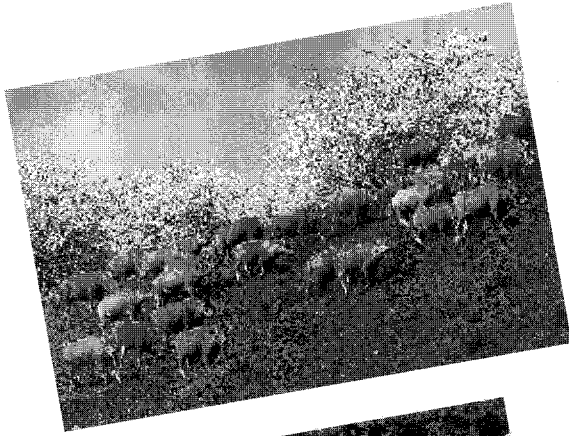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각국은 효율적인 유기축산 시행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EU를 중심으로 유기축산에 대한 소비자 단체와 NGO의 요구가 매우 커져서 유기축산의 시행은 세계적인 대세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유기축산의 시행 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식품의 국제규격화에 뒤쳐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Codex의 유기 축산 규범을 근간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유기축산 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며, 한국 실정에 가장 경제적인 유기축산의 규모와 사육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시행할 시점에 와 있다.

〈표 1〉 유기축산과 관행축산간의 분야별 성격구분

	분 야	관행 축산	유기 축산(한국의 시행령)
시 설 / 환 경	축사면적	• 밀집사육가능	• 축종별 사육밀도 기준 준수
	축사바닥	• 톱바닥, 시멘트바닥, 깔짚 등 다량(규정없음)	• 시멘트 구조 등의 바닥 허용 안됨
	분뇨 관리·처리	• 정화·자원화 방법 • 축사면적에 준한 처리시설 마련 규정(축산관련법 및 오분법에 준함)	• 자원화를 근간으로한 처리 방법 • 축산관련 및 오분법에 준함(동일) • 분/노 분리 처리
	축사시설	• 제한사육 가능	• 제한사육 불가능 • 자유로운 행동 표출 및 운동이 가능해야 함 • 군사원칙 • 가금의 경우 헛대, 산란상자 마련 • 자유급이 시설 마련
	방목지/운동장 시설	• 규정사항 없음	• 돼지, 양계 규정사항 없음 단, 소의 경우 축사면적의 3배
가 축 관 리	전환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축종별 전환기간 준수
	가축번식	• 규정사항 없음	•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 권장 • 인공수정 허용 • 수정란 이식, 호르몬 유지 허용 안됨 • 유전공학기법 허용 안됨
	사료/영양	• 비유기 사료 급여 허용 • 항생제 허용 • 성장 촉진제 허용 • 호르몬제 허용	• 유기사료급여 기준 • GMO 허용 안됨 • 성장촉진제 허용 안됨 • 항생제 허용 안됨 • 호르몬제 허용 안됨 • 합성, 유전자 조작 변형 물질 허용 안됨 • 국제 식품 위원회나 농림부장관이 허용한 물질 사용
	질병관리	• 구충제 사용 허용 • 예방백신 사용 허용 • 정기적 약품 투여 허용 •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사용 허용	• 구충제 사용 허용 • 예방백신 사용 허용 • 민방 요법을 이용한 환축 치료 권장 • 정기적 약품투여 허용 안됨 (환축의 경우에만 약품 투여 허용. 단, 약품 투여 기간의 2개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 • 성장 촉진제·호르몬제 허용 안됨(단, 치료목적의 호르몬 사용 허용)
	사양관리	• 밀집사육 허용 • 격리사육 허용 • Cage사육 허용	• 물리적 거세 허용 • 단미, 단이, 부리자르기, 빨자르기 등 허용 • 밀집사육 허용 안됨 • 군사원칙. 단, 임신말기, 포유기간 예외 • Cage사육 허용 안됨. 단, 자돈의 경우 25kg까지 cage 사육 허용 • 산란계의 경우 인공광 최대사용 기준(최대 14 시간)



2. 한국 유기축산의 발전과제

가. 소비자 대책

아직까지 유기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에 유기축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인식을 일반소비자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브랜드 축산물, 친환경 축산물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가격상승 요인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

기축산물의 실제 유통가격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특히 유기축산물은 품질이 좋은 축산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기 축산물에 대한 안전유통 교육도 필요하다.

나. 정부 대책

첫째, 유기원료 사료의 지속안정공급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유기 사료의 가격이 생산비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유기 조사료 생산 기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유기 축산물의 인증, 유통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농림부의 지원으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통합 쇼핑몰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소비자가 농산물을 간단히 인터넷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유기 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별도로 관리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정

부가 인증을 하고 소비자에게 추천을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기축산은 기존의 축산과 비교하여 유기사료 구입비의 상승, 노동투입량의 증가,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유기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농가소득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15 개국 전체에서는 농업환경정책의 일환으로서 유기농업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기축산의 시행초기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유기축산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생산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심하고 유기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기축산물 및 유사 유기축산물의 규격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농산물만 하더라도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농

산물 등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용어들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전달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축산물은 현재의 일반축산물, 브랜드축산물, 친환경축산물과 앞으로 생산될 유기축산물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생산자, 친환경 소비자단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확립될

미국의 경우 현재 약 1,000만명의 유기식품소비자와 약 10,000여호에 달하는 유기농업인이 있고 유기식품의 연 매출규모는 1999년 기준 약 80억불에 이른다. 현재의 증가추세라면 2010년에는 총 식품매출액의 10%가 유기식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급성장 추세는 EU나 호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유기식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기축산 규정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방목지(운동장) 확보 요건, 자급 유기사료 급여율, 유기 보조사료의 지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내 유축복합경영체계의 제도적 확립과 시범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지역내 자원순환형 유축복합연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데, 각 지역별 가축사육두수와 경지면적, 재배작물 및 토양특성 등의 입지조건을 기초로 하여 이에 적합한 분뇨처리시설과 퇴·액비유통망 및 연계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환경농산물 생산 즉, 병충해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사업 등에 치중하여 가축과의 연계가 취약하므로, 이러한 시범지역에 대해 가축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범사업지역의 선정시 가축분뇨의 지역내 환원을 원칙으로 하여 가축과 연계체계가 수립되어 있거나 가축사육 과밀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리
파

것이다.

다. 생산자 대책

일본의 경우 유기축산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구득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시로 인증기관과 문제점을 논의하여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을 신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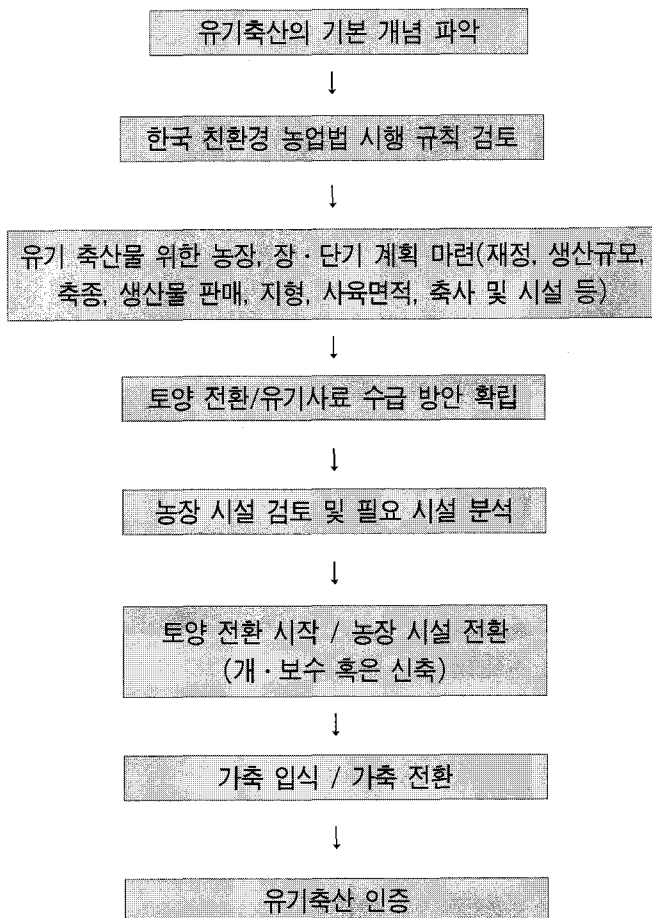
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축산농가가 유기축산농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유기사료의 구입부터 사양방법, 유통출하에 이르기까지 인증기관이 수시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생산자가 충분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만으로 어려울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기농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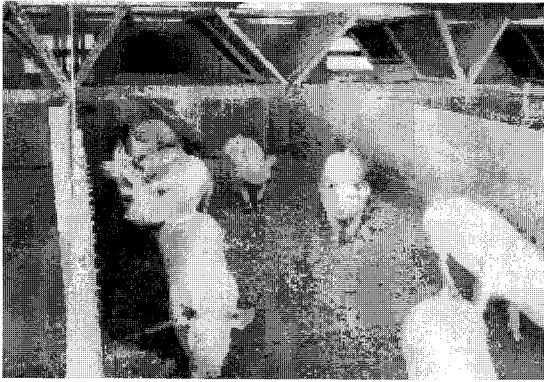
교 등과 연계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기축산경영체계의 확산을 위하여 축종별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축산관련 조직을 활용하여 유기축산물 생산을 품목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을 통해 한국형 유기축산 생산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단위의 모형으로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유기축산 경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유기사료의 원활한 공급과 자급사료 기반의 확대이다. 유기사료의 공급을 위하여 국내의 소규모 사료공장을 유기사료 전문생산공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공공성이 보장되는 농협의 소규모 유휴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비 절감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유기축산 단지화를 통해 유기축산물생산규정의 준수 및 노력투하를 경감시키고, 생산요소의 계열화체계를 구축하며, 관광농원화로 생산과 판매의 일원화를

〈그림 1〉 유기축산의 전환단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제품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유통 및 판매 업계와의 연동이 필요하며, 유기축산물의 위생·안정성이 확립·유지되어야 한다.

라. 유통 및 인증 분야 대책

유기축산물의 유통은 초기 단계에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양축가의 유기축산물 직접판매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개별양축가가 전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농협과 계약출하를 통하여 하나로마트, 물류센터 등의 유기식품 코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일관된 유통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시

킬 수 있으며, 유기축산물 시장의 정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유기축산물의 인증

체계는 국가가 공공성이 있는 축산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유기축산물 시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기축산의 초기에 소비자로부터 유기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축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을 통한 소비까지의 전과정을 인증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재 유기농축산물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축산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협 축산분야나 축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제국들과 같이 민간기구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돈**

재미로 보는 만화

분만이 계속도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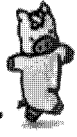
시험에 떨어졌지,
계단에서 미끄러졌지,
그녀에게 차였지...



하지만 학교에 불만을
가져도 소용없고,
계단에 화를 내도
소용없고,
그녀는 그녀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
오늘의 나는 화기찬 내가 좋다.
전진, 전진!



<자료: 부처와 돼지2- 있는 그대로 좋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는 인생법